

# 러시아 도핑 스캔들, 동계스포츠까지

## 김연아, 소치올림픽 금메달 목에 걸 가능성 거론

러시아의 대규모 '도핑 스캔들'이 동계스포츠까지 덮쳤다.

'피겨여왕' 김연아(27)가 소치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법학 교수 리처드 맥라렌이 이끄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독립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올 7월 러시아 선수들이 국가 주도 하에 집단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일어난 일로 전세계 스포츠계는 충격에 빠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 선수들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 대신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에 판단을 맡겼다. 러시아는 리우올림픽에 '반쪽짜리' 선수단을 출전시켜야 했다.

당시에 IOC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샘플을 전면 재조사 부정 행위 적발 선수들에게 징계와 메달 박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여전히 런던올림픽 샘플 조사는 진행 중이다.

WADA 독립위원회가 지난달 초 또다시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러시아 체육부, 반도핑기구, 연방보안국 등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적 규모로 도핑을 공모했다. 1000여명이 넘는 선수가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도핑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파문은 시즌이 한창인 동계 스포츠까지 번졌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러시아 쉐라빈 스키가 가지고 있던 2016~2017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파이널(9월 10~12일)의 개최권을 박탈하고, 대체 개최지를 찾으려 했다.

러시아바이에슬론연맹(RBU)은 2월 21~28일 오스트로프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와 3월6~12일 튜멘에서 열기로 했던 국제바이에슬론연맹(IBU) 월드컵 8차 대회 개최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각국 간판 스타들이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제빙상레이스퀼레본경기연맹(ISBF)도 러시아 소치의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권을 박탈했다.

ISBF는 독일 페니히스제를 대체 개최지로 선택했다.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이 의심되는 기간의 하계올림픽 도핑 샘플 재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IOC는 지난달 초 맥라렌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샘플 재조사에 나섰다.

또 IOC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소치올림픽에 출전한 28명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WADA 독립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나 이상의 소변 샘플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28명이 대상이다.

IOC는 28명의 명단에 대해 합구했지만, 속속 메달을 목에 건 러시아 선수들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겨여왕' 김연아(27)가 중심에 섰다. 러시아 스포츠 전문 매체 'R-스포츠'는 이탈리아 스포츠 전문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를 인용해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1·러시아)가 금메달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R-스포츠에 따르면 소식통은 "소트니코바의 도핑 샘플에서 특이 자국이 발견됐다. 이는 샘플을 열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소치올림픽 당시 피겨 여자 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에서 74.92점을 받아 1위에 오른 김연아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144.19점을 받아 총 219.11점으로 은메달을 따는데 만족했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144.19점을 받아 총 219.11점으로 은메달을 따는데 만족했다.

당시 김연아의 점수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전반에 걸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김연아에게 비교적 박한 점수가 주어졌었다.

전문가들은 삼판의 주관이 반영되는 예술점수(P.S) 뿐 아니라 기술점수(T.E.S)도 김연아에게 유독 '짠 점수'가 주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IOC는 "샘플 자체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도핑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를 내릴 방침을 시사했다.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박탈당하면 김연아는 역대 세 번째로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2연패를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피겨 여자 싱글을 비롯해 각 종목에서 러시아 선수들의 징계가 확정되면 순위가 요동칠 전망이다.

소치올림픽 종합 순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안방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나아가 러시아 도핑 스캔들이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나아가 러시아 도핑 스캔들이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IOC는 "샘플 자체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도핑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를 내릴 방침을 시사했다.



소치올림픽 당시 피겨 여자 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에서 74.92점을 받아 1위에 오른 김연아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144.19점을 받아 총 219.11점으로 은메달을 따는데 만족했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144.19점을 받아 총 219.11점으로 은메달을 따는데 만족했다.

당시 김연아의 점수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전반에 걸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김연아에게 비교적 박한 점수가 주어졌었다.

전문가들은 삼판의 주관이 반영되는 예술점수(P.S) 뿐 아니라 기술점수(T.E.S)도 김연아에게 유독 '짠 점수'가 주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IOC는 "샘플 자체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도핑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를 내릴 방침을 시사했다.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박탈당하면 김연아는 역대 세 번째로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2연패를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피겨 여자 싱글을 비롯해 각 종목에서 러시아 선수들의 징계가 확정되면 순위가 요동칠 전망이다.

소치올림픽 종합 순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안방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나아가 러시아 도핑 스캔들이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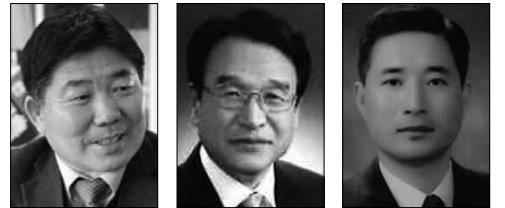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나아가 러시아 도핑 스캔들이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IOC는 "샘플 자체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도핑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를 내릴 방침을 시사했다.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박탈당하면 김연아는 역대 세 번째로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2연패를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피겨 여자 싱글을 비롯해 각 종목에서 러시아 선수들의 징계가 확정되면 순위가 요동칠 전망이다.



최형원 김중을 김동욱

## 전북체육회, 사무처 인사 단행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1차 2분부 2과로 조직개편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전북체육회의 방향을 이끄는 사무처장에는 최형원 전 스포츠진흥처장을 임명했고,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장에 김중을 전 경영기획실장을, 스포츠진흥본부 스포츠진흥본부장에 김동욱 전 지원유형처 지역지원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하 과장급 인사는 ▲스포츠진흥본부 경기진흥과장 김완(승진)(전보) ▲스포츠진흥본부 지역지원과장 김종하 ▲스포츠진흥본부 종합육성과장 이재인 ▲스포츠진흥본부 클럽육성과장 오두석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과장 김춘상이 각각 임명됐다. /김민근 기자



## 전북체육회, 시무식 개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2일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전 사무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업무 개시식을 가졌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7 전북체육발전을 위한 직원 간 소통강화, 현장활동 강화, 종목 및 시군 체육회 협력강화를 통한 조직 기틀 마련, 대내외적 친철행정, 자유로운 직원 간 의사소통 및 권한과 책임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새해에도 전북체육이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전북도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FIFA U-20 월드컵이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 스포츠 제전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나아가 러시아 도핑 스캔들이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IOC는 "샘플 자체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도핑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를 내릴 방침을 시사했다.

# 동부 허용, 2년 연속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전체 1위

### 8만3837명 투표 참여... 허용 5만3157표

원주 동부의 주전 가드 허용(24)이 2년 연속 올스타 베스트 팬투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KB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행한 2016~2017 KCC 프로농구 올스타 베스트 투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총 8만383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허용은 5만3157표를 얻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5만1518표를 얻어 올스타 베스트 최다 득표자가 된 허용은 2년 연속 팬투표 전체 1위에 올랐다.

올 시즌 주전 가드로 성장한 허용은 26경기에서 평균 33분42초를 뛰며 평균 11.2득점 2.7리바운드 3.3어시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팬 투표 전체 1~3위는 허용을 비롯해 가드들이 독식했다.

시니어 올스타 가드 부문의 김태술(서울 삼성)이 4만2548표를 얻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삼성으로 유니폼을 바꿔입은 후 '부활' 찬가를 부르고 있는 김태술은 2012~2013 시즌 이후 4년만에 올스타 베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역시 시니어 올스타 가드 부문 김선형(서울 SK)이 4만1686표를 획득해 뒤를 이었다.

김태술 김선형이 시니어 올스타 베스트의 한 자리씩을 쟁한 가운데 포워드 부문에서는 각각 3만24913표 2만8755표를 얻은 김주성(동부)과 함지훈(울산 모비스)이 뽑혔다.

오세근이 3만3522표를 획득해 시니어 올스타 베스트 센터로 선정됐다.

전체 1위에 오른 허용과 2만4988표를 기록한 전주 KCC의 가드 김지후가 주니어 올스타 베스트 가드 부문에 지리했다.

프로 데뷔 3년차인 김지후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올스타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승현(고양 오리온·2만8575표)과 마이클 크레이크(삼성·2만4794표)가 주니어 올스타 베스트 포워드 부문에, 김종규(창원 LG·3만1542표)가 센터 부문에 선정됐다.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를 제외한 올스타 선수단 명단은 감독 추천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

올 시즌 올스타전은 오는 22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펼쳐진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